

나주혁신도시 '훈풍' 분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공공기관만 있고 사람은 없는 '유령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광주일보 1월17일자 1면)가 제기됐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민간 건설사가 처음으로 대규모 아파트 용지를 사들이기로 하는 등 활성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부영주택과 혁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 가계약에 맺은데 이어 이달 말 공동주택용지와

골프장 부지 등 104만4527㎡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남개발공사가 분양을 추진중인 공동주택용지 4필지(29만941㎡)와 골프장 부지(75만3586㎡)가 모두 팔리는 것으로, 개발공사의 혁신도시내 분양 대상 면적(173만8601㎡)의 60%에 이르는 규모다.

민간건설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내 공동주택 용지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전체

약금액만 1674억8800만원에 달한다. 혁신도시 건설을 맡은 LH·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의 공동주택용지는 21개 필지 121만307㎡로, LH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자체 매입한 6개 필지를 제외한 15개 필지가 민간 건설사에게 공급돼야 하지만 지금까지 1개 필지(1만9219㎡)만 대물변제 방식으로 분양된 상황이다.

특히 시행사들은 그동안 '5년 무이자'나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환불이 가능한 '토

부영, 아파트·골프장 용지 104만㎡ 매입
이달말 본계약 체결... 조성사업 탄력 기대

지 리턴'등 과격적 분양 조건을 내걸고 수차례 분양에 나섰지만 건설사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매각을 계기로 향후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하반기 예정된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 매각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매수자가 원하면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 '무조건'환불이 가능한 '토

단독 주택 용지 분양에도 총력을 쏟아 혁신도시가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시 건설 시행사인 LH는 24일 혁신도시내 이전 대상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부지(11만5466㎡) 매입 계약을 체결, 15개 이전기관 중 11곳의 부지 매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건축면적 4만1379㎡ 규모로 지난 2월 청사 설계공모를 마치고 올 11월 착공할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



24일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현장. 덤프트럭과 굴삭기들이 곳곳에서 굉음을 내며 택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주=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완도 김·다시마 판매 4배 급증
일본 대지진에 이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면서 청정 해역에서 생산된 완도산 해조류가 인기를 끌고 있다.
24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조류 방사능 요오드 노출에 좋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완도산 김과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완도우체국의 경우 원전 사고 이후 온라인 판매를 통한 해조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최고 4배 늘었으며, 관내 일반 유통업체에서도 못팔 정도이다.
완도읍 A 물산역시 백화점 등 대도시로의 미역·다시마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고, 온라인 판매에 의존하는 B 업체는 2.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일손이 부족해 주문량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과학벨트위원회 당연직 위원 7명 중 5명이 영남 출신

김영진의원 "공정성 우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과학벨트위원회 당연직 위원 7명 중 5명이 영남지역 출신들로 채워져 향후 입지선정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발표한 과학벨트위원회 당연직 위원 7명 중 70%인 5명이 영남 출신 인사들로 구성돼 특정지역 편중 문제가 심각하다"며 "위원회 구성이 균형을 잃고 편중돼 있어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물론 정당성조차 인정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과학벨트 입지여건을 과학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사하라고 말했다지만, 정작 위원

광주일보 다문화 2세 시리즈 2011 한국신문상 수상

광주일보의 기획탐사보도물인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다문화 가정 2세들의 꿈·희망·대안찾기)'가 '2011년 한국신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24일 광주일보의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윤영기·최현배·최경호·이보람·이중행·양수현·김효 기자)와 국민일보의 '잊혀진 만행, 일본 전범기업을 추적한다' 등 2편을 기획탐사 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뉴스취재보도 부문에는 중앙일보의 '사라진 조선국보 일본 왕실에 있다'가 선정됐다.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광주일보의 보도가 "다문화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 등을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보도해 지역 사회의 다문화화 정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광주일보는 2007년 '온누리리 리포트-국제결혼 다문화가정'과 2008년 '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외국인노동자의 삶과 꿈' 등에 이어 이번 '다문화 2세 시리즈'로 다문화사회를 집중 조명했다.

- 광주일보 '다문화 시리즈' 주요 언론상 수상 현황
- ▲ 2007년 '제10회 국제엠베스티 언론상'-온누리리 리포트
- ▲ 2008년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 ▲ 2009년 '제12회 국제엠베스티 언론상'-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 ▲ 2009년 '제13회 일경연론상'-고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 ▲ 2011년 '한국신문상' 선정-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기아차 수출 1000만대 돌파

기아자동차가 수출 1000만대를 돌파했다. 지난 1975년 브라시 픽업 10대를 카타르에 수출한 지 36년 만이다. <관련기사 8면>
기아차는 24일 평택항 수출선적 부두에서 1000만번째 수출차량인 미국형 K5를 선적했다고 밝혔다. 1975년 브라시 픽업을 시작으로 프라이드, 모닝, 프라이드, 스포티지, 쏘울, 쏘렌토 등 세계적인 인기차종을 잇달아 출시해 2005년 누적 500만대를 돌파한 지 6년 만에 추가로 500만대를 수출했다. 기아차의 수출국은 1980년대 10개국에서 현재 156개국으로 늘어났다. 수출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북미 427만4355대, 유럽 245만1948대, 아시아·태평양 87만6856대, 차종별로는 프라이드가 130만8206대로 가장 많았고, 스포티지(신·구형 포함) 106만9201대, 모닝 76만4453대, 쏘렌토 65만6446대로 뒤를 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2012 여수세계박람회 공식후원은행
Super Regional Bank
KJB광주은행이
초우량 지역은행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KJB 광주은행